



처음엔 몰랐지만 제라드는 무척 마음씨가 따뜻한 친구였어요.

학교에서 매일 일기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,

영어를 모르는 저는 매 시간마다 한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.

어쩔 줄 몰라하는 저를 보고 옆자리 제라드가 제게

자신의 일기를 따라 쓰게 했습니다.





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제라드의 일기를 따라 적었고,

저희는 비바르게 친해졌어요.

책을 읽는 시간에는 서로의 책을 골라주기도 하고,

반 친구들이 카페트에 둘러 앉아 시를 낭송할 때에는

항상 서로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.